익산시, 홀로그램 메카 우뚝

'익산 호러 홀로그램 페스티벌' 교도소세트장서 2만5933명 방문 성황리 진행

'익산 호러 홀로그램 페스티벌'이 교도소의 밤에 펼쳐진 최첨단 기술 구현으로 인기몰이에 성공하며 성황리에 종료됐다.

실감콘텐츠라는 신기술과 무더위를 날려줄 공포 콘텐츠가 만나 '홀로그램' 상용화에 가능성을 입증하며 익산시가 홀로그램 메카로 인정받고 있다.

시에 따르면 지난 1일부터 6일까지, 6일간 익산시 교도소세트장에서 개최된 '익산 호러 홀로그램 페스티벌'에 총 2만5천933명이 방문했다.

지난해 첫 개최임에도 불구하고 9일간 총 1만3천285명이 방문한데 이어 올해는 지난해보다 3일 기간을 축소했음에도 불구하고 2배가량 방문객이 증가해 익산 대표 축제로 발돋움할 것으로 전망된다.

주로 10대~20대 젊은 층들의 발길이 이어졌고, MZ세대 특유의 트렌디한 감성에 맞춘 포토존 사진이 SNS에 공유되며 내년도 행사까지 벌써 관심도가 높아지고 있다.

공포 코스튬 콘테스트 사진

이번 페스티벌은 국내 최대 유튜브 공포채널 크리에이터 '윤시원'과 함께 하는 개막식을 시작으로, 교도세스트장 망루를 활용한 '망루의 붉은 눈' 등 홀로그램 공포 콘텐츠로 가득 채웠다.

'공포의 수용소', 폐교를 활용한 '학교의 여곡성', 잔디광장에서 함께 즐기는 공포영화 관람 '리얼 호러 시네마' 등 지난해 보다 다채롭고 풍부한 프로그램을 즐길 수 있었다.

전국 방방곡곡의 방문객들과 함께 총 상금 440만원의 공포 코스튬 콘테스트, 야외 공포음악회 등 특별 이벤트를 진행해 색다른 즐거움을 주었다.

한편 이번 페스티벌 성공 뒤에는 시의 그간 홀로그램 산업발전을 위한 노력이 숨어 있다. 시는 홀로그램 핵심 기술개발, 사업화 실증 지원 등 산업 생태계 조성에 주력해왔다.

활발한 기업 투자유치를 이어왔으며 '홀로그램콘텐츠 서비스센터'를 중심으로 홀로그램 기술 제품 연구개발과 콘텐츠 제작을 지원하고 'XR 소재·부품·장비 개발지원센터'는 홀로그램과 VR(가상현실), AR(증강현실) 등을 포괄해 실감 콘텐츠 산업의 융복합 비즈니스 매칭과 사업화를 지원하고 있다.

정헌율 시장은 "무더운 날씨에도 행사에 참여해주신 많은 분들에게 깊은 감사를 드린다"며, "앞으로도 홀로그램에 대한 인식을 강화하고, 다양한 분야에 접목해 실감 콘텐츠 체험 기회를 확대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익산=이재춘 기자

30년 이상 경영 '군산 전통명가'

시, 전통명가 세고비아 · 명예전통명가 삼학건강원 선정

군산시가 2023년 군산 전통명가 1개소(세고비아)와 명예전통명가 1개소(삼학건강원)를 선정했다.

8일 시에 따르면 군산 전통명가 육성 사업은 업체만의 차별화된 기술과 경영방식으로 오랜 세월 지역상권의 역사와 함께 한 전통가게를 발굴해 지속,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매년 각 부문별 3개 이내 업체를 선정하고 있다. 전통명가는 지역성, 역사성, 희소성 및 경쟁력, 업주의 의지, 지속가능성으로 구성된 5개 지표로 평가하여 선정된다.

군산 전통명가로 선정된 세고비아는 중앙로1가에 위치한 악기 판매점으로, 임장렬 대표가 1990년에 부친으로부터 가업을 이어받아 운영하고 있다. 현악기를 주로 판매하며 고객에게 맞는 상품 판매 및 수리를 통해 지역 내 악기 연주자들에게 두터운 입지를 보유하고 있다. 또한, 기타의 경우 호남 지역에 해외 명기를 취급·수리하는 가게 2개 중 하나로 높은 전문성을 보유하고 있다.

명예 전통명가로는 아버지로부터 가업을 이어받은 30년 전통의 삼학건강원이 선정됐다. 양파, 흑염소, 붕어즙을 주력 상품으로 약 30여가지의 건강즙을 생산하고 있다. 유현훈 대표는 건강원이라는 전통을 기반으로 하되, 제조시설과 판매시설을 분리해 약재와 건강즙을 기반으로 한 카페형 건강원을 구상하며 사업 다변화를 추구하고 있다. 또한, 온라인 판매 확대 및 지역 내 관광산업과 연계해 판로를 개척하겠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어 앞으로의 모습이 기대되는 곳이다.

선정된 업소에는 인증현판 및 인증서를 교부하고 각종 공식 SNS 채널 및 홈페이지, 리플렛 등을 활용한 홍보와 전문가 현장 컨설팅을 제공하며, 군산 전통명가의 경우 경영환경 개선 지원금 700만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군산=김판곤 기자

익산시, 'NS Food Festa 2023 in IKSAN' 준비 착착

사전보고회 개최… 9월 15~16일 식품문화축제 진행

대한민국 식품산업 메카 익산에서 펼쳐지는 K-푸드문화축제 'NS Food Festa 2023 in IKSAN'이 순조롭게 준비되고 있다.

시는 8일 시청 소회의실에서 정헌율 시장과 조항목 NS홈쇼핑 대표이사를 비롯한 행사관계자 12명이 참석한 가운데 사전보고회를 개최했다.

보고회는 그간 행사 추진사항을 공유하며 행사 프로그램 콘텐츠 확충과 홍보 강화 방안, 민관 역할 분담과 상생협력 등에 대해 열띤 논의를 했다.

올해 축제 규모를 키워 요리에서 식품으로 범위를 넓혀 음식문화축제로 확대하고 축제 일정도 9월 15일부터

16일까지 2일로 확대하여 함열읍 익산 4일반산업단지 내 하림 퍼스트키친에서 개최한다.

국내 최대규모 상금의 다양한 요리 경연대회 진행, 수십 개의 상설프로그램과 식품홍보관 운영, 하림산업 견학 등 축제 추진 전반에 대한 준비상황을 보고받고 운영상황을 점검했다.

조항목 NS홈쇼핑 대표이사는 "NS푸드페스타의 익산 개최는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는 모범 사례를 제시했다"며, "올해도 식품과 문화, 관광이 하나로 융합된 대한민국 대표 'K-푸드축제'로 식품산업의 새로운 비전을 선보이겠다"고 말했다.

정헌율 시장은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최고의 맛과 멋을 즐기는 식품축제인 'NS FoodFesta 2023 in IKSAN'가 성대히 개최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축제를 통해 우리나라 100년 먹거리 산업을 선도하고 식품산업 혁신성장의 메카로 입지를 다져나가겠다"고 말했다. /익산=이재춘 기자

익산시, 야간관광 활성화로 경제효과 도모

익산시가 야간관광 활성화로 '빛의 도시, 익산관광시대'를 이끈다.

시는 주간 관광, 당일치기 여행에 그치지 않고 야간 관광을 활성화시켜 방문객의 체류시간 증가 및 관광객 유치를 통한 경제효과를 도모할 계획이다.

'익산시 야간경제·관광 활성화 계획 수립 용역' 최종보고회가 8일 익산공공영상미디어센터에서 정헌율 익산시장과 시의회 기획행정위원회 의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됐다.

보고회에서는 '빛의 도시 익산'으로 대한민국 야간관광 대표 도시브랜드 구축을 위한 익산역과 근현대문화자원, 미륵사지와 왕궁리유적 등 역사콘텐츠를 아우를 수 있는 야간관광 활성화 전략들이 제시됐다.

미륵사지·왕궁 등의 백제문화 관광지에 AR·홀로그램 등 최첨단 산업이 융복합된 익산만의 야간 문화콘텐츠의 성공 경험을 바탕으로 지속적 브랜드 가치를 높여나간다는 계획이다.

솜리근대역사문화공간과 익산역 앞 문화예술의거리 구역과의 연계를 통해 야간관광의 시너지효과를 높이고, 거리별, 시간대별 테마를 달리한 야간관광콘텐츠 및 야간관광과 관련된 교통 및 안전문제 등에 대해서도 최종 보고했다.

이와 함께 야간관광 여건 개선을 위해 상권 활성화, 맞춤형 안내서비스 제공, 편의시설 개선, 야간관광마케팅에 주력하고 연계사업 발굴과 관련된 제안들도 이뤄졌다.

시는 높은 예약률을 보이는 4대종교 문화체험 다이로운 익산여행, 익산별별여행 등 체류여행 인기 흐름을 기폭제로 1박2일 여행상품과 현재 성공리에 운영중인 '호러 홀로그램 페스티벌'과 같은 다양한 관광 콘텐츠 개발을 통해 야간관광시대 붐업을 조성할 계획이다. /익산=이재춘 기자

태풍 영향 10일 군산문화재야행 개막식 취소·변경

군산시는 오는 10일 개최되는 군산문화재야행의 개막식을 취소한다고 밝혔다.

8일 시에 따르면 군산문화재야행(夜行)을 오는 10일부터 12일까지 추진할 예정이었으나, 태풍 '카눈'의 북상에 따라 10일 개최 예정이었던 개막식 및 야외 프로그램을 긴급히 취소한다.

군산 근대역사박물관 특별무대에서 진행될 예정이었던 개막식은 태풍으로 인해 취소됐지만, 문화재 및 문화시설의 내부는 밤 10시까지 개방되며, 내부 해설도 진행된다.

또, 11일과 12일 프로그램은 당초 계획대로 진행될 예정이며, 자세한 행사 일정 확인은 '군산문화재야행' 공식 홈페이지(http://culture-nightgunsan.kr)에서 할 수 있다.

박홍순 문화예술과장은 "태풍으로 인해 야행 첫째날 개막식 및 야외 프로그램은 취소되었지만, 문화재 야행의 가장 중요한 야간 내부 개방과 해설은 그대로 진행할 것"이라고 전했다. /군산=김판곤 기자

익산에 잼버리 참여 2000여명 체류… 총력 지원

익산시는 조기 철수하는 잼버리 대회 참가자 2천여명의 숙박·관광·안전을 총력 지원한다.

8일부터 11일까지 나흘 동안 '2023 세계스타우트잼버리'에 참여한 2천여명은 익산에서 잼버리 활동을 이어간다.

앞서 시는 7일 밤 정헌율 시장 주재로 긴급회의를 열어 원광대학교 기숙사 등 긴급숙박시설 확보와 대회 운영 지원책 마련에 나섰다.

시는 각국 스카우트 대원들의 원활한 의사소통을 위해 통역서비스를 제공한다. 참가자들에게 제공될 식사의 질, 양, 음식의 위생 상태를 확인하는 한편 의료 대책도 지원한다. /익산=이재춘 기자

지역 소식통

군산시, 주요도로 노면상태 일제조사

군산시가 노후 및 파손돼 정비가 필요한 주요도로에 일제정비 및 보수를 추진한다.

시는 8일 노후 및 파손되어 정비가 필요한 주요도로 정비를 위한 일제조사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일제조사는 관내 주요도로 99km에 대해 도로 노면요철, 포트홀, 거북등균열 등 노면 상태 조사를 실시했다.

그 결과 주요 간선도로 L=24.5km(A=2,234.9a), 보조간선도로 L=7.5km(A=750.2a) 등 정비가 필요한 구간에 대해 파악 완료했다.

이번 구간 정비를 위해서 약 80억의 예산이 필요하며, 하반기에 추경예산 26억을 확보해 시급히 재포장을 요하는 구간 L=12.8km(A=1,002.4a)에 대해 도로정비를 추진할 계획이다. /군산=김판곤 기자

익산 동산동, 고립 청장년 1인 가구 고독사 예방 총력

익산시 동산동행정복지센터는 8월 한달 동안 고립 청장년 1인 가구의 고독사 예방을 위한 실태조사와 폭염 취약계층 모니터링을 실시해 위험군 발굴에 나선다.

이번 모니터링은 최근 중장년층 1인 가구가 늘어나지만 복지상담이나 서비스 연계를 거부하는 경우가 많아 사회단절의 심화로 고독사가 증가하고 있어 이를 사전차단하기 위함이다.

동산동은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등 사회적 약자가 다수 거주하는 영구임대아파트의 고립 청장년 1인 가구를 우선으로 사회복지공무원이 전화 및 방문상담을 통해 실태조사를 하고 필요한 복지서비스를 연계할 예정이다.

특히 중점관리 대상자에 대해서는 월1회 정기적인 모니터링과 이웃애 돌봄단을 통한 안부확인을 시행하여 체계적으로 관리할 예정이다.

또한 연일 지속되는 폭염으로부터 온열질환을 예방하기 위한 수칙을 병행 안내하며 취약계층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고 있다. /익산=이재춘 기자

전주매일 아동학대 예방 캠페인

착한신고 아동학대 신고전화 112

"신고하는 당신이 영웅입니다"

아동학대 범죄를 알거나 의심만 되어도 신고하여야 하며
신고하지 않은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아동학대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정신적·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하는 것과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것을 말한다.

아동이나 학대행위자의 정보를 파악하지 못해도 신고는 가능하며, 가능한 많은 정보를 제공하도록 한다.

전화 : 국번없이 112
방문 : 관할 지역아동보호 전문기관

아동학대 행동적징후
- 어른과의 접촉회피
- 다른 아동이 울 때 공포를 나타냄
- 공격적이거나 위축된 극단적 행동
- 부모에 대한 두려움
- 집에 가는 것을 두려워함
- 위험에 대한 지속적 경계